

기 념 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6. 25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을 맞이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안보의식을 굳건히 다지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들께 숙연한 마음으로 삼가 명복을 빕니다. 또한, 참전 중 부상을 입고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 참전용사 여러분과 미망인, 유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군 재향군인회의 화합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열성을 다하고 계신 완도군재향군인회 정옥현 회장님과 완도군 6.25참전 국가유공자 김윤용 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뜻 깊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신우철
군수님, 조영식, 조인호, 김양훈, 박재선, 박성규, 최정욱,
박병수, 지민 동료의원님께도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참전용사 및 재향군인회 가족여러분!

북한은 지금도 주민들의 굶주림과 고통을 외면한 채 핵
개발과 증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국내외 악화된 정세 속에서 우리는 결코 6.25
전쟁의 의미와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열망을 지키기 위해서
라도 안보에 더욱 힘쓰는 것은 국민이 가져야 할 의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우리 사회의
국가안보와 안전에 대한 의식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
습니다. 우리 각자가 6.25전쟁으로 인한 희생과 아픔을 그
저 단순한 역사 책의 한 페이지로만 인식하고 참전용사들
의 희생을 망각한 채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 가 하는 우려의 마음을 갖아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념일을 맞아 6.25전쟁의 교훈을 되새기며
통일 의지와 염원을 결집시켜 민족공동체 형성을 굳건히
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 이땅의

주인인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참전용사 여러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6. 25.

완도군의회 의장 허궁희